경제혁신 3개년 계획 |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2. 28. (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이경식 과장(044-203-5620) 박찬기 과장(044-203-5650)	담 당 자	김준겸 사무관(044-203-5622) 최성준 사무관(044-203-5651)

산업부, 對美통상협의회 2차회의 개최

- ①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공감대 확산, ②FTA 충실 이행, ③에너지·제조업·인프라 분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12.28일(수) '對美 통상협의회*'(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관) 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美 대선('16.11.7)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對美통상협의회' 출범(11.23) 이후 월 1회 운영 중

○ 이번 회의는 1차 협의회 이후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각 기관별로 검토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 제2차 對美 통상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6.12.28 (水) 10:00~12:00, 무역협회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무역협회장 (공동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KOTRA·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민·관 연구기관장

○ **발표안건** : ① **(무역협회)** 한미 통상관계 증진활동 추진(안), ② **(KIET)** 對美 주요이슈 및 통상 동향, ③ **(KIET)** 新정부 통상정책 대응 및 협력 방안, ④ **(POSRI)** 新정부 인프라 투자·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협력 방안 등

□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新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우선, 한-미간 교역·투자·일자리 확대의 틀로 자리매김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미국내 일자리 창출 등 win-win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도 한미 FTA의 틀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한편, "미국 新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활용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해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도울 계획"임을 밝혔음

□ 이어진 안건 발표에서, 무역협회는 향후 '新정부 출범('17.1.20) 이후 단계적으로 미국내 주요 씽크탱크와의 교류 확대, 對美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등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美-中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엔·유로화 약세 가능성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을 지적하였고,

○ 산업연구원(KIET)은 향후 우리 기업들이 수출지역 다변화(자동차), 美 현지기업 M&A(석유화학), 美 시장 내 제품 차별화(섬유) 등의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주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검토·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업계와의 긴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김준겸 사무관(☎044-203-5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붙임 對美**통상협의회 2차회의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1 인사 말씀

연말연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인호 회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협의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통해 파악한
미국 新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 對美 통상협력 기조

우리 정부는 미국 新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그간 한-미간 교역·투자·일자리 확대의 틀로 자리매김한
한미 FTA의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그 win-win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양국간 호혜적인 관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세계교역이 10%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한미
양국 간의 교역은 한미FTA에 힘입어 15%나 증가하였고,
미국 ITC에 따르면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는 한미FTA의 도움으로
2015년 한해에만 약 157억불이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對美투자도 FTA 발효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미국 내에 질 좋은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 대미투자액 추이: (FTA 발효이전 4년) 연간 22억불 → (이후 4년) 연간 57억불

이러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그간 민·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美측과 소통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기관들에서도 美측 협업 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렌지 쥬스, 자동차의 원산지 확대인정, 금융정보 이전 등
美측이 제기한 통상 현안을
한미 FTA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했던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양국 업계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며,
최대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토대로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국 新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하고 강점이 있는 에너지·제조업·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내년 개시되는 가스공사의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은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의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try and Energy

또한 삼성전자가 세계적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향후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향후 5년간 1조불 인프라 투자 계획에
우리 업계의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발굴·추진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한편,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교역축소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G20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무역제한조치 동결(stand-still)에서 더 나아가
철폐(roll-back)까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며,
자유무역으로 피해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강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한 자유무역의 지지자로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중미6개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타결시켰으며,
내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에콰도르, 이스라엘 FTA를 타결하고
메르코수르, 멕시코, EAEU 등
거대경제권과의 신규 FTA 협의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인도, 아세안과의 개선협상,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RCEP, 한중일 등 메가 FTA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계와 함께 소통하고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멕시코와 인도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완화결정,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승소판정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4 맺음 말씀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한미 통상환경에 대한 민관 공동의 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참석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2-28 09:39:00